

'70년도를 보내면서

대한간호학회장 이 귀 향

'70년을 보내며 그 동안의 긴 역사와 함께 간호계의 보다 알차고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 60년대 부터 노력해 왔던 우리의 숙원인 간호학회의 발족을 보게 된 것은 우리 간호계에 발을 디딘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에 넘쳐 자못 감개무량 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

동시에 그에 따른 막중한 부담감과 함께 무엇인가 하나 하나 이루어 가야만 할 우리 간호계에 있어 '70년도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해 였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로 215명이라는 회원이 탄생했으며 다른 과학적인 이론과 체계의 종합할 위에서 교차적인 비약을 위한 우리의 모임 즉 간호학회가 한국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그 발족이 또한 확실하여졌고 간호교육과 함께 뜻 있는 연구논문 발표를 위한 제 1차 학술 발표회를 10월 29일에 가짐으로써 또 하나의 큰 힘과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의 감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.

김모임(연세대학교 간호대학) 모경빈(이화대학교 간호대학) 양은숙(전남의대 부속병원 간호과장) 이경식(서울대학교 보건 대학원) 김영미(카톨릭 의대 간호학과) 이은옥(서울의대 간호학과)씨 등 여러 간호학 교수님들의 학술 발표회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원장이신 김영정 교수와 카톨릭 의과대학 부속 성모병원 의과과장이신 이용자 교수님의 특강은 변천하는 사회의 시대상에 박차를 가할 강연으로 우리 모두가 이 당당하고 독자적인 하나의 학술기관의 표정을 진지하게 끝까지 살펴볼 때 저의 어깨는 더욱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.

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확고한 과학의 근거 앞에 그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실제화 해야 하는 우리 간호학의 진보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 외에 다른 분야의 학문과 관련이 있음으로써 더 확대되는 학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감지 하시리라 믿습니다.

단지 이것이 여러분의 연구 없이 비약을 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나의 학문, 나의 위치가 “나”라는 한 개인 개인에 직결될 때 어디 잠시라도 소홀히 하고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?

돌이켜 보건대, 간호학의 전환기, 아니 제자리를 찾아야 할 이 시기에 하나의 큰 사명을 띄고 여러분의 필수 불가결한 부수적인 반력로서 첫발을 내디딘 '70년도의 학회 발족은 연구발표의 기회 및 하나의 자극제가 되며 여러분의 창의적인 학구 활동에 기여를 함으로써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

니다.

한편으로 김영자 사건으로 간호원들이 단결하여 권익을 위하여 투쟁해 오던 중 또한 서울대학병원과 중앙의료원 간호원들의 처우개선 파동을 안고 그때도 꼭 있어야 했던 거대한 목적의 발디범인 학회의 발족은 난산을 겪어야만 했고, 발족 이래 짧으나마 우리 간호학회 발전을 꾀 말고 있는 저희 임원들은 그동안 10여회의 임원회를 소집해서 미비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실천 등 그 첫 출발의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코자 힘을 내었습니다. 아울러 여러분의 학문의 분출구 및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한 절박한 전문지의 역할로 70년 내로 학술지를 출판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. 어느 학술지 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탐구의 산 증거로써, 최고 의욕적인 생생한 열의로써 아낌 없는 참여가 그 빛을 더 하리라 믿습니다.

과연 우리가 간호직이라는 전문직업과 더불어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변천하는 시대적 격세의 차를 민감하게 느끼며 얼마만한 연구들 했으며 후세의 그들에게 몇몇하게 전달 할 수 있는 제반 창의 활동이었는가는 우리 세대에 사는 여러분들의 철저한 연구 및 뒷받침이 그 바람직한 결실로써 그때로 간호활동 및 교육을 통해 전달될 때 다음 세대가 느끼는 간호학적인 문제는 그 해결의 타당성이 존재할 것이며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분야의 간호사업이 과학적인 연구하에 올바른 기념 위에서 해결되고 시행될 때 비로소 오늘날의 어려움의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?

Nightingale 시대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출몰 쉬지 않고 발전해 왔던 이 시점에서 서 있는 우리들 보선 쫓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간호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의 분위기에 젖어 심오한 하나 하나의 간호의 본질에 입각한 학문의 연구는 누구나가 스스로 느끼고 사명을 뉘 큰 과제임을 재삼 밝히고 싶습니다.

간호학의 개념을 느끼겠음 더던 발걸음 하나 하나가 모여 앞으로의 간호학회의 발전에 기여됨을 생각하시고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각자 여러분의 애뜻한 아낌과 성원 없이는 이 우렁찬 발디범으로 시작하게 된 학회의 앞날은 '70년도를 보내며 그 출발이 바람직하겠습니까?

오는 70년대의 술한 미래의 꿈속에 간호계의 소망을 안은 시대적 요청에 상응하는 이 간호학회가 간호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, 간호업무 분석, 고차적인 간호기술의 훈련, 이에 따르는 통제적인 활동과 조사 및 평가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대학과정의 연구과정의 연구 논문을 비롯한 간호학계의 지도자들의 하나의 주제 및 학술기관으로 결실을 맺어 70년은 재 출발의 해로써 잠개 무량함은 비록 학회장 직을 맡은 저 뿐만은 아니리라 믿으며 그 동안 여러 모르 수고 해 주신 임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가깝게 보살피 주실 간호계의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.

끝으로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여러분들의 정력을 간호학회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보다 나은 70년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분투 노력이 있을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.